

[Narrative Mind and Religion] / (text in Korean)

- 내러티브적 마음과 종교 -

오늘 새벽에, 그동안 과학과 종교를 학문적으로 연결하려하여 온 Metanexus 연구소의 웹 기사 글을 읽고 다음의 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인지과학의 현재 학문적 관점에 관련되어 종교와 이야기에 대한 다음의 생각을 적어봅니다.

*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야기]와 [내러티브]는 구별하여야 하지만, 여기서는 의사소통 측면에서 둘을 혼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1], [2], [3]의 순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1] * 2010년도 학지사 출간, [인지과학: 과거, 현재, 미래] 책에서
'내러티브적 마음'에 대하여 이정모의 생각을 주장한 글 내용 =>

*12장 중에서

[12.5]. '내러티브적 인지' 접근: 인지과학과 인문학의 연결

인지과학이 지난 50년 동안에 주로 고전적 인지주의(계산주의) 틀을 중심으로 발전됨에 따라 그동안 소홀이 되고 발전이 별로 두드러지지 못하였던 인지과학의 영역이, 인간의 마음(인지)과 이야기(내러티브, narrative)적 접근을 연결하는 틀의, 즉 인문학과 인지과학, 공학을 연결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는 형식화하기 힘들고 객관적 경험적 접근이 어렵다고 간주되어서 주류 인지과학의 흐름에서는 그동안 배제되어 온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영역이 지니는 의의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있고 또 그 변화가 인지과학 전체 패러다임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앞으로 그 영향이 점진적으로 증가되리라 본다.

인지문학과 인지과학 일반 분야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Mark Turner 교수는¹⁾ 1996년의 책, "The Literary Mind"라는 책에서 '인지과학의 중심 주제가 사실상 문학적 마음의 문제이다'²⁾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의 기본 원리이다('Story is a basic principle of mind.')라고 하였으며, 인지과학과 문학을 연결하며, 내러티브적 인지과학이라는 하나의 대안적 인지과학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내러티브적 접근을 인지과학에 도입하여 실제의 인간의 마음의 작동의 원리를 밝히려는 이러한 Turner 교수 등의 노력은 실상 1930년대 영국 심리학자였던 F. C. Bartlett 교수의 '마음은 이야기 스키마에 의한 의미의 구성적 노력'이라는 생각의 부활이며, 소프트한 인지과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온 인지심리학자(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인지과학의 출발에 큰 역할을 하였던) Jerome Bruner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Mark Turner 교수 자료 사이트 : <http://markturner.org/>

2) 'The central issues for cognitive science are in fact the issue of the literary mind.'

내러티브적 입장은 철학자들의 논의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의 기본 원리가 이야기적 원리, 즉 내러티브적 원리임이라는 것이다. 철학자 D. Lloyd(1989)는 "Simple Minds" 라는 책에서 인간의 심적 원리로 세 가지를 들었다. 그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구현(implementation) 수준의 신경망적 연결주의 원리가 작용하고, 상위 심적 수준에서는 일차적으로 이야기 원리(psychonarratology principle)가 작용하고, 그 윗 수준에서는 필요에 의해서만 합리적 이성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논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이성의 일차적 패턴은 이야기 패턴이고, 이차적 패턴이 논리다. 이성(추리)의 1차적(원래) 형태는 이야기 패턴(narrative pattern)이다. 이야기는 인지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이 모든 정보처리에 있어서 이야기 구조에 맞게 구성하고 처리하는 기본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Lloyd는 이것을 psychonarratology라고 부르고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일차적이며 원초적인 사고 패턴이고, 이것에서 부터 인간의 합리적 이성이 뒤늦게 진화되었다고 본다.³⁾

한편 D. Dennett(1991)은 내러티브 원리를 마음 이론에 도입하여 '여러 초벌 모형(multiple drafts model)'이라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여러 초벌 모형'에서는 온갖 지각들과 온갖 사고와 심적 활동들이 두뇌에서 병렬적으로 처리되어 진행된다고 본다. 여러 길로 감각 입력 정보들이 끊임없이 해석되고 정교화, 재교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여러 길(tracks)에 의한 병렬적 처리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첨가, 통합, 수정, 다시 쓰기 등이 여러 수준에서 일어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것이 이야기 흐름(narrative stream or sequence)같은 것을 낳는다. Dennett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 마음이란, 단일적이고 통일적이며, 정적이고 단순원리적인 단일 주체(agent)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이고 통일되지 않고, 경쟁적이고, 역동적이며 복잡한 여러 주체(agents) 또는 다원적 이야기들(drafts)에 의해 엮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5.1]. 인지과학과 문학의 연결

인지과학에 내러티브적 접근의 도입이 필연적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인간 마음의 결정적 산물이며 또한 인간 마음 활동인, 문학을 인지과학에서 연결하여 탐구하여야 하는 것이 요청될 것이다. 인지과학을 위하여서, 그리고 문학을 위해서라도 문학과 인지과학이 연결, 수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문학의 상위범주인 인문학이 인지과학과 연결되어야 한다. 인지과학과 문학을 연결하는 연결점에서 [인문학]과 [인간 본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수렴-융합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⁴⁾

이러한 연결은 인지과학과 문학, 예술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렴, 융합, 통합적 연결에 의해 가능하여진다. 인문학과 인지과학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여 인문학자와 인지과학자들에게 인간 마음 또는 심적 활동과의 이해와, 문학/예술(이해)의 상호 괴리 현상이 지속될 수 없음의 인식이, 그러한 인식의 변환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학문적 분위기의 떠오름이 진행되어야 한다.

예술과 인지과학을 연결함에 있어서, "... 예술은 인간 마음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에서 주변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are not marginal for understanding the human mind.)"라는 자각, 인식이 인지과학자들에게 필요하다. 또한 문학/예술가/인문학자들은 인지과학의 중

3) Lloyd와 Dennett의 입장 논지 자료 출처: <http://blog.naver.com/metapsy/40096269577> 의 "6절. 마음의 내러티브 원리와 인지과학" 의 내용을 편집한 것임. (원전: 이정모, 1996).

4) 마크 터너의 말; "We may be seeing a coming together of the humanities and the science of human nature."

요한 발견, 중요한 지적 발전을 무시하거나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며, 인지과학자들은 문학과 예술을 다루지 않거나 무시하여서는 인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문학을 비롯한 예술 영역들은 어떤 근거에서 학문간 수렴, 융합적 생각의 틀, 그리고 수렴적 융합적 테크놀로지의 창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일까?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내러티브, 문학, 예술 등이 인간에게 가능하게 하는 공통적, 공유적 개념적 바탕의 창출과 개념적 융합, 혼성의 현상에서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연관에서 내러티브적 인지과학 접근의 추구나, 수렴-융합적(당연히 창의적인) 사고의 육성 및 창출에 인지과학적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론틀로써 인지언어학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념적 혼성(개념적 융합); Conceptual Blending’의 틀이 제공하는 이론적, 응용적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12.5.2]. 개념적 혼성(Conceptual blending): 인지과학과 문학 연결의 이론적 틀

초기의 고전적 인지과학은, 주로 기억, 학습, 기호적 사고, 언어습득 등과 같은 심적 과정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컴퓨터와 가장 닮은 심적 과정임을 전제한 고전적 인지주의의 틀의 영향이다. 그러나 지금의 인지과학은 더욱 점진적으로 보다 정서적(감정적) 요인이 개입되고(A. Damasio 등의 연구 결과), 비교적 더 창조적인 마음의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다. 과거에는 문학이 인지과학을 멀리하고 인지과학과 문학이 서로 연결이 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 두 영역이 수렴, 융합되고 있다. 그러한 수렴을 가능하게 하여주며 인간의 마음의 내러티브적 작용의 역동을 이해하는 개념적, 이론적 바탕 틀로 등장한 것이 ‘개념적 융합: (conceptual blending)의 이론 틀’이라고 할 수 있다(질 포코니에, 마크 터너, 2009).

개념적 융합(혼성)이란⁵⁾ 인지의 일반이론으로서, 의식수준에서라기 보다는 하의식 수준에서 작동하는 인지적 현상이다. 의식적이건, 하의식적이건 현재의 문제와 관련되는 2개 이상의 상황(학문 분야 간이건, 테크놀로지, 산업의 영역들/ 대상들/ 사건 들/ 일상적 생활-행위 장면 등이건)의 씨나리오적 요소들 그리고 핵심적 관계성이 혼성(blended; 결합, 융합)되는 인지적 과정을 지칭한다. 문학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은유, 유추, 비유 등의 이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예: ‘바다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 이 개념적 혼성 과정들이 인간의 인지와 행동, 특히 일상적 사고와 언어의 도처에 산재하여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적 융합(혼성) 틀은 창의성을 비롯하여 인간의 여러 인지적 현상을 설명하여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인문학, 예술, 인지과학을 연결하여 인간의 인지, 마음, 행동, 문화, 과학기술의 융합을 이해하는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기업 등이 추구하는 융합적 인재 양육의) 새 틀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예술이 공학과 연결되어 창의적 공학적 테크놀로지의 창출의 생각의 바탕 밭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이 상황공간간의 개념적 혼성, 융합의 원리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의 제시한 철학자들의 입장에 대한 개괄의 요점을 결합하고, 그동안에 진행되어온 인지과학의 **서사심리학**(narrative psychology) 등의 접근을 연결하여 보고, 1930년대의 영국의 심리학자 F. C. Bartlett 교수의 주장을 연결하고, 최근의 Mark Turner(1996 등) 교수의

5)[개념적 혼성이란 무엇인가?] (위키피디아자료: http://en.wikipedia.org/wiki/Conceptual_blending)

주장을 종합하여 본다면, 이야기란, 내러티브란 마음의 기본적, 일차적, 근원적 작동 원리이고 내러티브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지적 바탕이 개념적 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일상의 정체성이건, 우리의 미래 모습이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건, 특정 과학 주제이건, i-phone과 같은 인공물의 공학적 창안이나 그 이용이건, 2010년의 한국의 세종시 관련 논쟁이건 간에 열심히 이야기(story)를 만들어 내는 것에 바탕을 두고 우리의 존재가, 서로의 존재적 관계가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각자가 아침부터 밤까지(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이야기’를 양산하여 내는 그러한 존재이고, [마음 = 작은, 그러나 powerful한, ‘story, 즉 narrative 생산 공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그 때 그 때에 우리 자신이 짜내는 이야기 판본(drafts)(Dennett, 1991)에 의하여 나 자신, 다른 사람, 세상의 여러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생각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를 지각, 이해,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12.5.3]. 내러티브 관련 인지과학 추세 종합

내러티브 관련하여 이러한 추세의 고찰에서 드러나는 것은, 첫째로 인지과학에서 밝혀진 인간 마음 작동의 능동적 구성의 기본원리는 이야기 만들기(narrative making)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종래의 문학(비평) 이론을 지배하던 내러티브인 페미니즘이나 구조주의, post 구조주의적 사고가 문학/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 기존의 문학(비평) 이론은 주로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측면만 강조하였지, 그러한 문학활동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인지적, 신경적 측면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결과가 지니는 시사점을 무시하였다. 실제의 인간은 진화역사적으로 변화/발달한 몸을 지닌 생물체 (자연 범주)인데, 과거의 문학, 적어도 문학(비평)이론은 이러한 문학적 산물을 내어놓고, 또 이해하는 인간이 자연의 존재라는 자연 범주 특성을 무시하여 왔다(신경적, 인지적 작동원리를 무시함). 과거의 문학비평 이론은 문학작품, 예술 등(TV 보기, 공감 등)과 관련된 인간 마음의 [자연과학적으로 밝혀지는] 숨겨진 복잡성 (hidden complexities)에 대하여 학문적 인식, 과학적 지향함의 수용이 없었음을(인지과학적 의미에서) 보여준다. 아니, 실제의 예술작품 생성 작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나, 과거의 문학(비평)이론가들은 문학이론 구성에서 이러한 부면을 무시하여 왔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현재의 태생적 별거 상태를 벗어나서 문학과 인지과학이 연결된다면, 그리고 이에 앞서 언급한 ‘체화된 인지’의 개념적 틀이 도입되고 응용인지과학적 영역이 연결된다면 인지과학의 미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가능성들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1. 인지과학이 기존 고전적 인지주의의 ‘마음’ 개념과 [데카르트 식 존재론]을 탈피하여,
2. ‘마음’ 대신 ‘몸’을 강조하는 [스피노자 식 존재론]의 전통을 이은 ‘체화된 마음, 체화된 인지(Embodied mind/ cognition)의 틀로 전환되며, 체화된 마음(embodied mind)의 전통을 살려온 철학의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등의 현상학적 전통, 리피르 등의 문학이론 전통 등에 대한 인지과학의 긍정적 연결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통이 과거의 실증주의적 과학적 전통에 몸담아 온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경험적 체계, 또는 형식적 접근(formal approach)의 연결 가능성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항상 주변환경의 대상 및 상황과 괴리되지 않은 채, 그들과 하나의 총체적, 통합적 단위로서 자신의 몸의 활동을 통해, 감각운동적 상호작용(인터랙션)에 기초하여, 행위의 주체(agents)로서 삶의 의미적, 행위 내러티브를 엮어가는 그러한 상황지위진 생명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빚어내는 활동으로서의 마음(인지)으로 마음 개념화 작업이 재구성 되고,

4. 또한 ‘인간’과 ‘인공물’을 별개의 불가침의 범주로 규정하며 이분법적 내러티브를 적용하여 경계선을 그려온 과거의 이분법적 존재론의 내러티브를 벗어나서, 즉 인간과 인공물의 경계가(이것도 일종의 내러티브이다) 허물어지며 (R. Kurzweil의 ‘특이점이 온다.’ 및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사조 참고),

5. 이러한 마음의 본질적인 기능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진화 역사상에서 인류가 발달시켜 온 바, 즉 환경 속에 내재된 자신의 적응적 생존을 위하여, 자신을 포함한 ‘뇌-몸-환경’의 총체적 상황적 의미를 끊임없이 의미적으로 관계짓고 ‘예측’하는 실타레인 이야기(내러티브) 구성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야 하며,

6.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에 심리학을 철학에서 독립시켜 하나의 과학으로 출발시킨 Wilhelm Wundt가 생각하였던 바인 제2의 심리학(Voelkerpsychologie)적 틀 - 주관적 의식의 내용과 문화, 역사적 영향이 심적 내용에 주는 영향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학적 설명과 관련된 다음의 최근 사조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이 미래 인지과학의 틀에 주는 시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본다.

[2]

지난 일요일 (SUNDAY, MARCH 18, 2012) 에 [Google Blog](#)에서

<http://korcogsci.blogspot.com/search/label/Andy%20Clark>

[Clark 교수의 글: Whatever next? 뇌, 상황지위진 agents, 인지과학의 미래]

이라는 제목 의 글 끝에 내러티브에 관하여 올린 글 내용:

.....

그러면 마음이 [내러티브적 원리]에 의해 작동한다는 이정모의 주장은 Clark의 주장과 어떤 연결이 가능한가? -> 다음과 같은 speculation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물이 진화하는 단계에서 진화의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동물들은 예측을 잘하고 그에 적절한 actions을 연결시킨 동물이었다고 하자. 하등동물은 시간-공간적 연결관계에서만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하였는데, 고등동물에서는 그를 넘어 원인-결과의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예측하고(확률적 계산처리) 행동하였다고 하자. 고등동물을 넘어선 인간에게서는 단순히 원인-결과적 예측을 넘어서 더 높은 수준의 더 잘 예측을 하는 메커니즘이 발달되게 되었다고 하자. 예측을 하는 메커니즘이 계속 발달되고 정교화되어야 하는 부담을 인류가 지니게 되고 그

결과로 고도의 [예측들-생성-오류교정-행위] 메커니즘을 발달시킬 수 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을 하나의 coherent한 줄거리로 엮는 이야기적, 내러티브적 마음이 발달될 수 밖에 없었고, 바로 그러한 고도의 예측 생성적, 내러티브적 마음 역동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동물이 따라오지 못할 수준의 마음 메커니즘을 지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자.

이렇게 speculation을 한다면, [체화된 인지] 틀의 주창자였으며 뇌를 [expectation-error correction]기계로 본 Clark의 글과 [mind that works according to the narrative principles]의 입장을 연결하여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틀릴지도 모르며 쉽게 반증가능한 하나의 speculation에 지나지 않겠지만 이정모가 CLARK의 글에 지적 흥분을 하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여간에, [감각자극의 input]이 출발점이 되어 먼저 bottom-up적 신경정보적 계산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여온 기존의 신경과학, 철학, 심리학, 인지과학, 인공지능, 로봇틱스 등의 분야들은 이 환경에의 [action-oriented multi-level Top-down & Bottom-up]적 [expectation generation and error correction like] Bayesian machine으로서의 뇌에 대한 Clark 교수의 입장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3].

종교의 노벨상이라 일컫는 상을 수여해온 Templeton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1997년 이래로 과학과 종교를 연결한 이론적 생각들의 논의를 학문적으로 전개해 온 Metanexus Institute가 (<http://www.metanexus.net/metanexus-institute>) 그 창립멤버인 William Grassie 교수의 글, "Storied Nature of Human Nature"를 최근에 웹자료로 올렸다 (March 15, 2012). 이글의 내용 중 이정모가 편향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을 축약하여 아래에 제시하고 (+ 이정모의 개인 생각), 이와 [1], [2]에서 전개한 생각을 기반으로 이정모의 추가 의견을 올려본다.

이미 <http://blog.naver.com/metapsy/40153510910> 글에서 언급한 바처럼 우리 인간은 늘 117개의 사고 오류 속에서 산다 (그 이유가 인간 마음의 본질이 내러티브 구성 원리에 의거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정모는 믿지만). 그렇기에 William Grassie나 이정모나 그 117개의 오류적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일 수 있다. 그런가 여부 판단은 독자 여러분 각자가 하시기 바란다.

"Storied Nature of Human Nature"

- March 15, 2012

- by William Grassie:

http://metanexus.net/blog/storied-nature-human-nature?utm_source=2012.03.20+Storied+Nature+of+Human+Nature&utm_campaign=2012.03.20&utm_medium=email

또는

http://www.huffingtonpost.com/william-grassie/storied-nature-of-human-n_b_1313586.html

브루너(Jerome Bruner)를 비롯한 인지과학자(심리학자)들이 우리의 마음이 내러티브적이며

각자의 '자기 자아' 개념은 이 이야기의 산물이라는 것, 그리고 인문학에서, 상식에서 거론되는 '자아'라는 것은 어떤 실체라기 보다는 각자가 만들어 그속에서 사는 그러한 이야기임을 논하고 있다.

이 이야기 내러티브는 그저 개인 내적, 사회적 어떤 것을 가리키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 사회와 문화를 묶어 엮는 기본적 요소이다. 내러티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사건과 우리들의 행위를 의미있는 패턴으로 엮는 방법이다. 그것은 개개 사건과 행위를 인과관계로 묶어주며 통일된(coherent; 정합성이 있는) 전체로 만들어 준다. 이 내러티브 틀에 의하여 우리는 어떤 사건과 행위가 의미있고 어떤 사건과 행위는 의미없는 무시할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 내러티브는 인간의 삶을 통일성(정합성)있고 연속성 있게 구성하여 주는 인간적 삶의 방식, 근간이다.

이정모는 진화역사 과정에서 인간이 동물과 차별화된 수준의 문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간이 동물적 수준의 시공간 관계적, 더 나아가서는 인과적 관계를 인지/표상 하는 수준을 넘어서 환경적 사건(자신과 주변 agent들의 행위 포함)에 대해서 인간 나름대로의 내러티브적 의미를 (agents -> actions -> effects <== agent의 intention에 대한 추론) 부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 [1] 정보처리 부담(information processing loads)을 줄이고,
- [2] 세상사에 대한 그럴싸한(heuristic: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틀릴 수도 있는: Daniel Kahneman과 Gerd Gigerenzer 아이디어)
- [3] 예측(expectation: 이 개념은 Andy Clark의 이론적 개념에서 아이디어를 얻음)을 하고 ([2]가 [1]을 이루는 한 방법일 수도 있다.) error-correction에 의해 그것을 최적 수준으로 조정, 도출하며,
- [4]. 세상 환경을, 그에 대하여 자신이 몸을 움직여 (embodied) 적응 행위(actions)를 할 의미있는 (coherent whole) 무엇으로 표상(representation)하며
- [5]. 그렇게 하여 다른 동물 수준을 넘어선 수준에서, 다른 동물 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survival 적응행위(진화심리학적으로)를 내어놓으며 진화해 온 존재로 인간을 보는 것이다.

이미 여러 글에서 이정모가 표현한 것처럼, 인간은 각자 자기자신만의 내러티브를 열심히 만들어 그 속에서 살며 - 공부하고, 대학가고, 연애-결혼하고, 직장 선택하고, 가정과 직장 및 다른 사회적 상황에서 대인 관계를 맺고, 그 내러티브 위에서 특정 종교를 믿고, 그 내러티브 속에서 모든 지각적 착시, 종교적 맹신,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군중의 편향적 믿음에 동참하고 - 그러다가 가는 것이다.

내러티브가 인간 삶을, 나를 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Metanexus 글로 돌아가서 인용하자면,

인간이 갖고 사는 내러티브 중에서 특히 삶의 틀로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메타내러티브("metanarratives.")라고 한다. 이것은 이념, 종교, 민족주의, 문화 관련 생각 틀이다. 그것(기독교신앙이건, 불교신앙이건, 좌파진보주의 신념이건, 우파보수주의 신념이건, 재벌기업 직

장 관점이건 중소기업 직장 관점이건) 자기가 주변환경과의 오랜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낸 자기 중심적 이야기(내러티브)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을 망각하고(인정하지 않고) 절대적 참인양, 자기의 주관적 이야기가 아닌 객관적 절대적 참(진리)인양 생각하고 믿게 된다. (주변에서 그런 정치적, 종교적 편향을 그대로 믿고 고수하며 신봉하는 “인지과학자”, “심리학자”들을 볼 때 마다 [Daniel Kahneman]의 책을 제대로 읽지 않은 그들을 가여워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내러티브를 절대적, 객관적 신념으로 믿고 사는 것도 그들이 지어내며 살아가는 한 내러티브이기도 하니 동정은 하지만 내가 나의 내러티브가 더 낫다고 주장하며 개입할 근거도 없다. 각 사람은 각자 자신의 내러티브를 열심히 만들고 믿고 살다가 가는 것일 뿐. 이 시점에서 이런 관련에서 인지과학의 경험적 연구의 시사와 불교적 생각의 접근이 이루어짐을 느낀다.)

기독교의 성경에서

“One option for scriptural interpretation is to read the Bible and other sacred texts as rich sources for archetypal stories.

그 위에 더하여,

“ Of course, such an approach finds large portions of these scriptures 타당하지 않고(irrelevant) in the contemporary context and also accords them the same status as other myths, fairy tales, and great literature from around the world. This approach seeks contemporary, true-to-life profundities in sacred stories...”

(- *여기에서, 이정보가 아래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글, ‘뇌과학을 넘자면’의 7절, “7. 맺는 말: 인지과학과 문학”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학과 인지과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metapsy/40138781026>)

그리고 우리는 진화적으로 인간이 인간 사회를 정합적으로 통합하는 일정한 구조와 틀을 지닌 이야기 틀로 발전시켜온 내러티브 틀을 가지고 종교적, 정치적, 인생적 중요한 물음들에 대하여 대답을 찾는다. (to answer such big questions is through stories.)

그렇지만 인간은 이야기적 생명 존재이다. (but we are no less storied creatures.)

그동안 인기를 끌은 ‘해를 품은 달’ 드라마가 이제 끝났다. 그래서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인간의 내러티브적 마음이 없는 인간 사회를 생각해보자.

모든 드라마도, TV 방송 프로그램도, 신문 뉴스도, 온갖 책도, 인터넷 메일도, 인터넷 게임도, 종교도, 좌파-우파 대립도, 말도 안되는 정치적 사건도,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강변도, 독도도, 동해도, 직장 상사-부하 관계도, 대 기업의 거대한 목표와 상거래 관계나 기획도, 연인의 연애와 사랑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부모-자녀 관계와 다른 가족 관계도,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믿어온 나에 대한 ‘나’라는 ‘자아’ 개념도 사라진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껴어있는 (심지어는 자면서 꿈에서도) 시간의 50% 이상을 내러티브를 엮으면서 그 내러티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지적으로, 인지적으로(cognitively) 껴어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

==>

최소한 우리 인간은 그러한 자기 내러티브적 틀 속에서 살다가 간다는 것,
더구나 그 내러티브가 늘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117개의 편향과 오류 속에서
내가 오늘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

그러한 것을 모두 알고,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하겠지요 !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지어내는 종교적, 정치적, 일상사적 내러티브들의 Ups & Downs에
몰입하거나 그런 자기가 옳다고 믿거나 하지 말며 ! ***

특히 인지과학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

그 내러티브가 인간 세상 모두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조용할까?
무엇이 남을까?
???

- * 이상 이 오늘 2012년 3월 21일 새벽녘에 지은 이정모의 편향적 내러티브였습니다.
- * 이정모도 위의 ***의 예외가 아닙니다.